



정교회 주보



성 마르켈로스 주교와 성 빵그라띠오스 주교

마태오 제 16주일

성 파르테니오스 주교

제 2조, 조과복음 2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제 2응송 / 164, B 157

•제 2조 부활찬양송 / 81, A 212

•주일 입당송 / 14, A 42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찬양송 / 164, B 157

•성당 찬양송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시기송 / 164, B 159

•사도경 : II고린토 6:1~10 / 봉독서 257

•복음경 : 마태오 25:14~30 / 118, B 58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교회의 기혼 성인들

성 마르켈로스 주교와 성 빵그라띠오스 주교

성 마르켈로스(AD1세기)는 안티오키아에서 살았습니다. 성인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 주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듣기 위해 자신의 아내와 아들인 빵그라띠오스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인은 베드로 사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인 빵그라띠오스도 세례를 받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르켈로스 성인에게 시칠리아의 주교 서품을 주었고, 성인은 많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참 믿음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마르켈로스 성인은 평화롭게 안식하였습니다. 그

리고 마르켈로스 성인의 아들인 빵그라띠오스는 베드로 사도를 따랐고, 나중에 소아시아의 킬리키아에서 바울로 사도를 만나 서품을 받고 시칠리아의 타오르미나의 주교가 되어 수많은 이방인들과 우상숭배자들에게 복음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칠리아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성인을 붙잡아 매달고 결국엔 화형을 시킵니다. 이렇게 빵그라띠오스 성인은 영광의 순교의 월계관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 두 분의 성인을 2월 9일 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느님으로부터 자유인으로 창조되었다. 에덴동산에서 온갖 만물을 조화롭게 주관하면서 하느님과 자유로이 대화하며 친교(koinonia)를 맺고 낙원(천국)을 거닐었다. 그러나 하느님과 대화를 하며 거닐던 에덴동산에서의 삶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었고 낙원에서 추방된 인간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한 후 아담의 후손들의 역사는 매 고비 고비 고통을 당할 때 마다 그들의 죄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람인 예언자들이 전해주는 희망의 말씀을 듣고 이를 따르며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자유와 친교를 다시 주시기위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죽음과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로는 자유인이 된 사람은 다시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 즉 명예, 재물, 권력, 욕심, 자존심, 이기심과 같은 것들에 구속된 삶을 살면서 참된 자유를 상실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당부하신다.

자유를 상실하고 사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고 게으른 생활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므로서 주님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난 사람과 같다 (마태 25:30).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유인이 된 사람은 가족관계의 연결고리와 인간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주님의 머리로 구성된 교회생활에서 주님과 교우들과 친교를 나누는 영성생활을 살아 가는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생활은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영성체를 통해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여러 교우들과 함께 천국의 시민으로서 영원한 삶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유인이 된 사람이 누리는 최상 친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자유인이 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의 선물을 활용하여 몇배 불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유인 즉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충성스러운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마태 오25:21)” 라는 칭찬을 받도록 하자.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기도: 영적인 삶의 중요한 요소(12)



아토스의 꽃들(저자: +모세 수사)에서 발췌
깊이 뉘우치는 마음과 양심의 가책(呵責: 꾸짖어 책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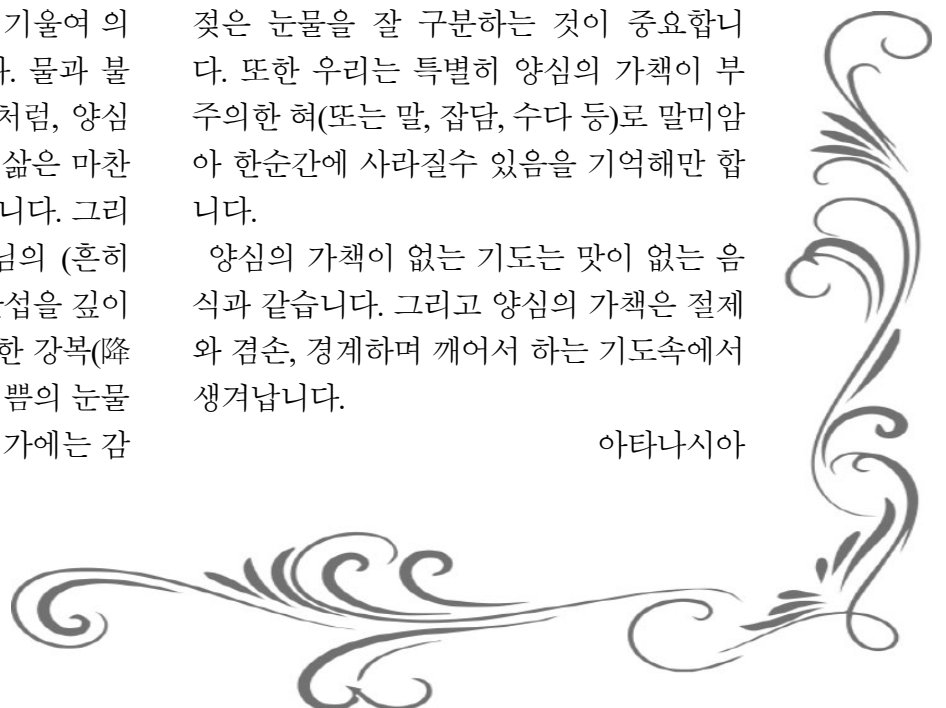
요한 끌리막스 성인(6-7세기)에 따르면, 진정한 기도는 '눈물의 어머니이며 딸'입니다. 깊이 뉘우치는 마음과 자신의 양심을 꾸짖으며 책망하는 것은 참된 기도엔 언제나 함께 하는 친구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과 우리 마음의 순결함, 우리 영의 진심어린 겸손,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며 바라봐야만 하는 죽음의 신비를 주의를 기울여 의식하며 사는 삶에 기초를 둡니다. 물과 불이 함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양심의 가책과 사치스럽고 과시하는 삶은 마찬가지로 함께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의 삶속에서 하느님의 (흔히 불쾌해 보이지만) 유익한 많은 간섭을 깊이 의식할수만 있다면, 그분의 풍성한 강복(降福)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은 기쁨의 눈물로 가득찰 것입니다. 정교회의 성가에는 감

사의 눈물과 양심의 가책으로 흐르는 눈물이 결합된 영적인 달콤함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풍부하며, 이를 수도사들이 쓰는 금욕적 용어로는 '하르모리빠'(곧, 기쁨어린 슬픔)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눈물로 장식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기도에 눈물이 따르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시다. 금욕가 마르코(5세기, 이집트 사막의 수도자)는 이런 눈물과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양심을 꾸짖으며 책망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특정한 죄가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발사누피오스 성인(6세기, 팔레스타인의 수도자)은 말하기를, 인간적인 권리와 세속적인 것에 대한 사랑을 던져버릴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참된 양심의 가책과 피상적이고 허영심으로 가득 차며 감상주의에 젖은 눈물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특별히 양심의 가책이 부주의한 혀(또는 말, 잡담, 수다 등)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사라질수 있음을 기억해만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는 기도는 맛이 없는 음식과 같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은 절제와 겸손, 경계하며 깨어서 하는 기도속에서 생겨납니다.

아타나시아





주보 소식



대교구

■ 설날 예배 안내

오는 2월 12일(금)에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 는 설 명절입니다. 설을 맞이하여 교회에 서는 추도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성찬예배와 추도식이 9시 30분에 거행됩니다.) 신자 분 들께서는 풀리바를 준비하셔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시간은 각 지역성당에 문의해주십시오.(코로나19로 상황에 따라 추도식 예배 참여 가능성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12일 금요일은 설날 명절로 금식이 해제됩니다.)

■ 전주 성모안식 성당의 재건축과 영성 센터 건립을 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주 성모안식 성당의 재건축과 영성센터는 50%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주)이에 코건설 시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올해 7월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262,690,000원으로 50%가 지불되었고, 나머지 50%인 1,262,690,000원은 보상금으로 받은 건축비로 지불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현재 재건축비 통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부금들이 들어왔습니다. :

1. 호주 대교구에서 100,000호주달러.
2. LH공사로부터 환지금 74,430,100원.
3. 전주 사택 매도 134,000,000원.
4. 여러 많은 분들로부터 100~5,000유로 기부금들을 받았습니다.
5. 4월에 그리스인 고 안토니오스와 고

마리안티 푸리오티스 부부로부터 200,000유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비는 815,401,496원이 있고 447,288,504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모님의 중보로 이 거룩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2021년 가을에 성당문과 영성센터 문 여는 예식을 할 수 있도록, 나머지 공사대금이 모일 수 있도록 신자 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온라인 단체 모임

코로나19로 대면모임이 어려워져서 온라인 단체모임을 시작합니다. 매주일 오후 1시에는 신데즈모스, 오후 2시에는 부인회, 오후 3시에는 예비신자 모임을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각 단체 신자 분들은 이 시간에 보내드리는 줌 링크를 통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성모안식 성당

■ 온라인 단체 모임

코로나19로 대면모임이 어려워져서 온라인 단체모임을 시작합니다. 지난 주 토요일부터 시작한 온라인 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남성회, 여성회 신자 분들은 이 시간에 보내드리는 줌 링크를 통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